

地에는 飛雲文이 있다. 身光에는 上部에만 兩側으로 飛雲文이 있을뿐이
며 兩光周緣에는 火焰文이 陽刻되었다.

東國輿地勝覽에 黑石寺는 「在府南十五里」라고 있어 方向이나 距離가
符合되는 點으로 보아 傳稱되어오던 寺名을 그대로 踏襲한듯하나 黑石
寺의 由來에 對하여는 分明하지 않다. 如何든 磨崖石佛은 羅末麗初의 作
이며 如來座像도 臺座의 上臺石과 光背의 缺失部分이 이 附近에 埋沒되
어 있을 것이므로 이것을 찾는다면 完形을 이룰 것이고 그 製作도 新羅
下代로 推定되는 黑石寺는 그 由來가 相當히 오래지 않았나 생각된다.

- 如來像高 一·六m 膝幅 一·三m
臺座現高 〇·九m 地臺石一邊 〇·六m
光背大片現高 一·一m 頭光徑 一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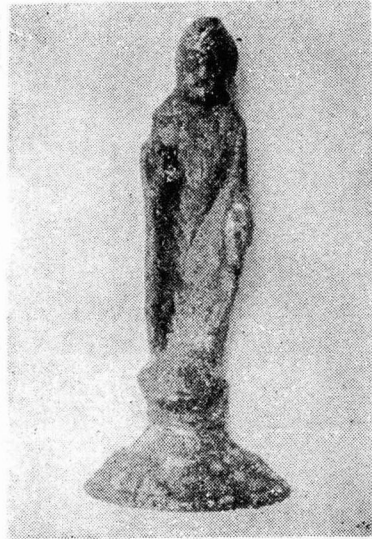
公州 西穴寺址出土의 金銅如來立像

金 永 培

邑에서 西穴 約 一km 熊津洞 日落山中腹에는 百濟의 西穴寺址가 洞窟
과 함께 남아 있다. 一九六〇年 이 寺址에서 樵夫에 의하여 小佛一軀가

光背는 二片이 남
아 있으나 大體의
形態는 알 수 있다.
原形은 舟形인듯 하
며 頭光과 身光을 二
條의 陽刻線으로 區
分하였다. 圓形頭光
안에는 약간 아래로
큰 子房周圍로 單瓣
蓮花 八葉이 있고 間

發見되었는데 優品은 아니라 하더라도 公州出土의 遺例가 매우 稀貴하
기에 간단히 紹介한다. 圓形蓮座위에 正面直立한 如來像으로서 身臺에
는 鍍金의 痕跡이 歷然하며 곳곳에 靑綠鏽가 보인다. 手印은 與願(三指
垂下)施無畏(五指現掌)의 通印으로서 法衣는 通肩이나 鑄造가 精巧치 못
하여 衣褶이 分明치
않다. 다만 胸下에
小突起가 있어 본시
裳衣의 結紐를 表示
한듯하며 兩手に 걸
친 法衣는 특히 右
側에서 二段으로 鎊
게 垂下되어 있다.
頭上의 肉髻는 아주
작은 편이며 素髮로
서 相好는 작고 등골이 童顔에 가깝다. 白毫孔이 있고 兩眼은 杏實形으
로 큰데 比하여 口鼻는 작은 편이며 兩耳는 半月形으로 겨우 짐작될 뿐
이다. 臺座는 半圓廣底의 所謂 白形으로서 伏蓮座에는 周緣을 連珠帶로
하여 單蓮四瓣이 陽刻되었고 그 위의 좁아들은 마디에는 圓帶一條가 돌
러 있으며 頂上의 圓形足座上에는 兩足은 아니 보인다. 身臺가 全鑄되
었는데 梯形의 斷面을 보이며 頭後에서 臺下까지 平面을 이루었다. 따
라서 佛身背面에는 아무런 彫紋이 아니 보인다.



以上과 같은 各部의 樣式이나 鑄成의 手法에서 미루어 매우 高古한
作品으로 推定되며 아마도 百濟公州都邑期인 西紀六世紀頃의 遺作으로
보아 貴重한 資料가 될만하다. (全高 七·四cm 身高 五·五cm 臺高一·
九cm 臺徑 三·二cm)

(附記) 公州博物館에는 日帝時 同郡 鷄龍面 新基里 陵岩寺址(傳百濟創建)

에서 出土된 靑銅如來立像一軀(臺缺)가 陳列되고 있어 此品과
比較되어야 할 것이다.

(註) 이 佛像과 身部나 臺座의 樣式 또는 크기가 거의 같은 金銅立佛一

軀가 日帝時 公州山城에서 出土되어 日人 輕部氏의 所藏이 되었다.
(同氏著 「百濟美術」 圖版參照)

廣州郡 西部面 草一里 石佛立像

鄭 永 鎬

千戶洞을 지나 廣州郡 西部面 新場里에서 下車하여 春宮里로 가는길 約七〇〇m地點 右便에 法洞이라는 마을이 있고 이곳에서 北쪽으로 가 면草一里인 바 그 中途인 사리재(寺里峴)에 佛像一軀가 遺存하고 瓦片이 散在하나 洞民들은 寺址라고만 말할 뿐 寺名은 不明하다. 大正五年度 古蹟調査報告書(廣州條)와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卷에 이 石佛에 對한 記錄이 있으나 筆者가 六月 十八日 再調査한 바 있기에 紹介하려한다. 사 리 고개를 넘어 草一里로 내려가는 언덕 頂面에 位置한 이 佛像은 腰部 以下가 埋沒되어 있어 筆者는 同好數名과 發掘調査하였다.



花崗岩에 浮彫한 이 石佛은 光背를 갖고 正面直立하였는데 兩肢가 缺 失되고 腰部까지만 現存한다. 螺髮의 頭頂에는 比較的 작은 肉髻가 있 고 眉間에는 큼직한 白毫孔이 있으며 兩 耳는 길고 三道가 있다. 顔面이 몹시 破損되어 코와 입은 알 수 없으나 兩眉目 의 痕跡은 어렴풋하 다. 右肩偏袒한 衣 紋은 腰部로 내려져 左腕에 걸쳐 흘렀다 右腕은 들어 왼쪽가

슴에 올랐고 第一、二指로 가볍게 寶珠를 쥐었는데 그 曲線이 流麗하다. 光背는 二重輪光形으로 頭身光을 區劃하였다. 彫飾은 없다. 이 佛像은 비록 相好와 身部에 많은 破損을 입었으나 顔容 및 衣褶 等の 彫法으로 보아 高麗初期의 佳作으로 推定되었다. 露天에 있고 더우기 破損이 극 심한 點으로 보아 保護策이 期待된다. 實測値는 全高二m 身高一七〇 cm 肩幅 五五cm 胸幅 三三cm 光背上幅 一〇三cm 下幅 一一五cm

安城의 石佛

鄭 明 鎬

六月 十七、八兩日間 京畿道 安城郡의 佛敎遺跡과 遺物에 對한 調査를 通하여 새로히 注目된 塔像中 石佛만을 記錄하여 두겠다. (參加者 黃壽 永、崔成鳳、申榮勳、筆者)

(1) 安城邑 公園內 石佛坐像(寫眞) 元來 竹山梅谷里 寺址에서 日帝時 搬出된 것이라 한다. 佛身은 蓮花臺上에 結跏趺座하고 兩手는 後補나 智 學印을 結한 듯하며 右肩偏袒으로서佛頭 는 補修되었는데 兩 膝端이 三角形을 이 루고 있는것이 特異 하다. 蓮花臺座는 竿 石을 삼고 上下臺石 만 重疊되어 있는데 上臺蓮瓣內에는 四 葉紋을 裝飾하였다. 光背는 舟形이나 二 重輪光形으로서 頭

